

〈提 言〉

물의 教育

< Curriculum On Water Resources >

權 五 憲*

Oh Hun Kwon

大學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問題를 우리는 통칭 教育課程(Curriculum)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教育과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데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그 基本要素로써 國家社會의 背景과 産業社會의 要求 및 학생의 資質을 꼽는 데는 큰 異意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에 관한 學問分野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上記要素中 産業社會의 需要가 主要考慮要素이다.

우리나라 土木工學分野의 教科課程은 大學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으나 대체로 土木工學의 發達歷史에 基因한 것인지 또는 傳統的인 습에 연유한 것인지 構造力學, 콘크리트分野에 比하여 水工學에 할당된 學點, 時數가 적은 느낌을 갖고 있다. 構造, 土質, 水工學등의 比重을 論한다는 것을 그 自體가 하나의 커다란 爭點으로서 本人의 能力을 벗어나는 일이나, 그러면 과연 물에 관한 教育은 均衡을 갖추었으며 構造의으로 만족할 만 한 것인가 하는데 항상 의문을 가지왔다. 水工學에서 基礎科目이라면 流體力學 또는 水文學을 일컬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 水文學은 그 發達歷史가 짧은 막내라서 그런지, 아니면 既成世代가 大學時節에 教育받지 않은 탓인지는 몰라도 정당하게 매우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限자의 制限된 經驗이지만 前에 勤務하던 國營 産業體에서는 水理學의 知識보다는 水文學의 知識을 더 必要로 하는 業務가 많았는데 이러한 會社의 入社試驗科目에 조차도 이제까지 例外없이 水文學이 除外되어 왔다. 産業體의 入社試驗은 그렇다 해도 大學에서는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水文學을 必須科目으로 하는 大學은 극히 一部分으로 大部分은 選拔科目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實驗大學에서는 水文學을 배우지 못하고 大學院 또는 産業體에 바로 進出하는 學生이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今年부터는 技士試驗에 水文學分野가 반영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올바른 大學教育을 誘引하는데 寄與할 것으로 생각되어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大學에서 무엇을 꼭 가르쳐야 한다는 筆者의 提言자체도 모순을 안고 있다. 即 무엇을 얼마만큼의 時間에 어떤 方法으로 教授해야 하는가 하는 뜻으로 教育課程을 이야기 할때, 教育課程의 設計와 發展에 妥當히 影響을 주어야 할 要素를 우리는 誠實히 評價하고자 努力했는가를 自省해보자는 이야기가 적절할 것이다.

國家社會的인 與件과 産業體의 需要가 어떤 經路로 大學教育에 반영되며, 만약 반영이 잘 안된다면은 그 防害要因은 무엇인가 여러가지로 생각된다. 生産工場이 市場의 需要를 감안하지 않거나 技術의 變遷을 看週할 때 그 業體는 立場을 잃을 것은 自明하다. 産業體의 工場과 大學教育의 경우를 같이 比較한다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나 教育課程 設計만이 유일하게 feedback 이나 Feedforward가 必要없다고 主張할 수는 없을 것이다.

教育은 百年大計라는 側面과 産業社會의 要求에 教育의 反應이라는 두가지 얼굴은 반듯이 調和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要素이다. 教育을 朝令暮改式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不誠實과 落後性에 對한 變明으로 받아 드릴 수는 없겠다.

* 本學會 正會員 忠南大 助教授 技術士